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이용자 확보 방안

양 재 현*

< 목 차 >

- | | |
|-------------------------|-----------------------|
| I. 서 론 | 3. 자료 및 예산현황 |
| II. 창원시의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연구 | 4. 이용현황 |
| 1. 창원시의 형성과정 | IV. 이용자 확보방안 |
| 2. 지역주민의 구성분포 | 1. 마을공동체 : 다윗의 물뿔들 전략 |
| 3. 창원시 주민통합과제 | 2. 기반시설 확충 : 선과 축의 연결 |
| III.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현황 | 3. 합리적 운영 : 신뢰성 확보 |
| 1. 시설현황 | V. 요약 및 결론 |
| 2. 조직 및 지원현황 | 참고문헌 |
| | Abstract |

I. 서 론

지역주민에게 봉사할 목적으로 창원시에 세워진 도서관으로는 2개의 공립공공도서관, 1995년 7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세워진 사파동성 마을도서관, 1995년 8월 봉림 복지회관에 세워진 봉곡 마을도서관, 창원시에 소재한 9개 복지회관중 대원 복지회관과 팔용 복지회관에 1996년 상반기에 개관할 2개의 마을도서관과¹⁾ 새마을

* 창원전문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

1) 창원시에는 정보화사회의 진입과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른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마을, 직장, 학교에 도서관갖기 및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94년 6월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설립추진 위원회를 조직(공동대표로 이은진(경남대 교수), 양재현(창원전문대 교수)하였으며, 동년 10월 동 연구소 개소식을 가졌다. (소장: 이은진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정영애 창원대 교육학과 교수)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도서관갖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1995년 7월 7일 사파 동성 아파트 단지내에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도서관을 개관 하였으며, 동년 8월 30일 창원시 봉곡동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던

운동 창원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있다.

창원시에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1994년 10월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연구소에서는 마을, 직장, 학교도서관 갖기 및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도서관을 통한 도서관사업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사업, 사회교육사업, 문화예술 사업을 연구·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파동성 아파트 단지내에 지역주민과 협의하에 마을도서관을 설립하였고, 창원시에 소재한 9개 복지회관을 창원시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봉림복지회관내에 봉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나머지 복지회관에도 개관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

1945년 해방이후 50여년 동안 '마을문고'운동을 비롯하여 수많은 도서관운동들이 일어났지만 많은 부분이 기대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실패하였다. 이러한 운동이 실패한 주요 요인에 대하여 최성진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²⁾

'실패의 주요 원인은 그러한 운동과 시도들이 적절한 지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이 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러가지 독창적인 운동과 시도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과 시도는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성, 즉 역사의식, 기술현황,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 검토를 바탕으로한 이론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검증된 이론이 마련되지 않은 채 무작정 어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런 운동이나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봉사와 정보봉사 현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이론과 기술을 공급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입니다'

봉림복지회관에 봉곡마을도서관을 개관하였으며, 동년 9월 연구소 명칭을 경남정보사회연구소로 개정하였다. 동년 10월 창원시로부터 창원시에 소재한 9개 복지회관 운영권을 위탁받아 1996년 상반기에 대원복지회관과 팔용복지회관에 마을도서관 개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동년 12월 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사서요원 4명, 사회교육전문요원 6명을 채용하여 개관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연구소 소속 사서요원은 6명, 사회교육전문요원은 10명이 정식 채용되어 있으며, 연구소에서는 이들을 각 마을도서관에 파견하여 마을도서관 및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논문집, pp. 7-9.

최성진교수는 해방후 50여년 동안 각종 도서관운동들이 기대한 만큼 성공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를 '지적기반' 부족의 탓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기반을 공급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으로 보고 있다.

이어 최성진교수는 본인이 수행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된 64편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잡지 기사 중에서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는 45.3%, 약하게 관련되거나 전혀 관련되지 않는 연구가 전체의 54.7%였다고 한다.³⁾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해방후 각종 도서관운동들이 '지적기반'을 지니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한국의 도서관 발전과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한국적 도서관 실정에 맞는 자생적인 이론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이 각종 도서관운동을 실패하게 만든 주요한 요인으로 사료되어진다.

1987년 대학도서관 개혁운동이 부산대학을 비롯하여 경북대학, 전남대학, 충남대학 등에서 일어나 나름대로의 '지적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대학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게 사실이다. 이들 운동은 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었기에 나름대로의 운동성과 지적기반을 비교적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도서관운동의 많은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존재하며,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필요와 욕구도 다양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현장사서들은 도서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이 미시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장사서들은 쉽게 지쳐버리고, 도서관운동에 주체자로 나서지 못하였다.

지역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주변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체이다. 따라서 지역 도서관 환경을 호의적으로 변화시키는데는 지역사회에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거시적 접근방법이 산적한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

3) 상계서, p.10.

다.⁴⁾

거시적 접근법이란 지방화시대에 공공도서관 외부의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공공도서관 내부로 불러 넣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도서관 내부의 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문제에 관심있는 시의원, 언론사기자, 현장사서, 지적기반을 제공해 줄 교수들 등 외부인사들로부터 운동성을 확보하여 도서관 내부와 주민 속으로 침투할 때 도서관내부 문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원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운동에 대한 '지적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에 대한 지역주민·사회연구와 창원시에 소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창원지역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이용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창원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연구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확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사회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김영기는⁵⁾ 그의 논문에서 기본이용자층 확보를 위하여는 기본이용자 개념의 도

4) 거시적 접근법이란 지금까지 창원에서 일어난 도서관 관련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창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운동은 지금까지 크게 2가지가 있다.

1985년 설립된 '경남기술정보전문가협회'와 1994년 설립된 '경남정보사회연구소'가 있다. 전자는 경남대학 교수 몇분, 창원전문대학 도서관과 교수, 한국중공업등 기업체 기술정보담당자들, 한국기체연구원등 연구소 기술정보실 담당자들, 동남공단관리청 경영지원 담당팀, 창원상공회의소 조사부 담당팀, 산업연구원 경남지원등 산·학·연·관에서 기술정보를 연구·지원·실행하는 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협의회 활동 결과 창원공단에 많은 기업체에 자료실, 기술정보실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당시 도면자료, 규격자료, 특허자료, D/B자료, M/F자료 등의 관리가 주로 공대출신자들에 의해 관리되어져 왔으나 사서들이 관리량이 바람직하다는 마인드는 어느 정도 심어졌었다. 지금은 운동성 부족으로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또 하나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로 현재 지역대학 교수, 변호사, 도서관사서, 지역신문사기자, 지역시의원 등 40여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마유, 직장, 학교도서관찾기 및 살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입, 지역주민 연구, 지역사회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 연구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요구에 대한 파악, 지역주민의 구성분포에 대한 연구, 지역주민의 상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연구는 그 지역에 속한 회사, 기관, 그룹 등의 요구를 파악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역사적 배경, 주요산업 현황, 인구밀집지역, 주거환경, 심리적인 특성, 문화적 공통성,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 공공도서관 이용자 확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연구를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창원시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1. 창원시의 형성과정⁵⁾

창원시는 한반도 동남단 경상남도의 중부 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창원시와 같은 위도상에 있는 도시는 부산, 김해, 마산, 진주, 광주시이며, 같은 경도상에 있는 도시는 진해, 대구, 영주, 양양 등이다.

창원시의 지형은 서북쪽의 천주산, 동쪽의 정병산, 남동쪽의 불모산, 남쪽의 장복산과 팔용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며, 해안선은 마산만과 접하고 있다. 옛날은 교통이 불편하여 교류가 한정되었던 관계로 지역민의 성격, 민속 등이 사회·문화적으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습속이 거칠고 모질었다고 한다.

오늘날 창원시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74년 발굴된 성산패총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선사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창원시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1970년대 이후부터이다.

-
- 5) 김영기, "도서관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學會), 제19집(1992), pp. 196-199.
 6) 창원시, 시정백서. 창원, 창원시, 1995.
 창원시, 창원시사. 창원, 창원시, 1988.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신문사 공동 주최, "21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실평지움자료(창원: 1995. 5. 26; 창원호텔 목련홀)

1973년 7월 1일자 대통령령 제6542호로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전역과 내서면의 구암, 합성, 회성, 두적의 4개리와 구산면의 예곡, 우산, 현동, 덕동의 4개리가 마산시에 편입되고 웅천면 전역이 진해시에 편입되었다.

1974년 4월 1일자 건설부고시 제92호로 마산시의 두대동, 덕정동, 삼동동, 반송동, 연덕동, 용지동, 목동, 토월동, 외동, 정동, 가음정동, 남산동 등 12개동 전역과 서상동의 27개동 일부지역 43,352㎡ 대규모 기계공업기지 건설을 위하여 산업기지가개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1976년 9월 1일자 경상남도 조례 제853호로 경상남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되었다.

1980년 4월 1일자 법률 제3188호로 창원지구출장소 관할전역과 마산시 의창동을 편입하여 18개 행정동으로 창원시를 설치하였다.

1983년 7월에는 경상남도청, 동년 9월에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가 옮겨오자 도 단위 행정 및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온 나머지, 공단배후도시로 출발한 창원시가 행정 중추기능을 확충하면서 지역중심도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창원도시기본계획(1984)'을 수립하여 자족적 완결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지만, 주거·상업지와 공업지의 비율이 1 : 1.07로 공업지에 비해 주거지가 협소하여 공단배후도시의 역할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1995년 구창원군의 동면, 북면, 대신면과의 통합으로 종래의 면적의 1.3배가 늘어난 291.62km² 용지난 해결은 물론 경남지역의 산업·경제, 정치·행정 및 교육·문화의 두뇌·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된 것이다.

창원시는 정부의 국가공단건설에 따른 배후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건설되어 절끔한 계획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아래 형성된 도시의 성격이 지방자치시대에 와서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참여가 창원시 발전의 중요한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2. 지역주민 구성분포

1995년 9월말 현재 창원시 인구는(경남통계계보, 1995. 3/4) 469,220명이다. 1976년 창원지구출장소가 설치될 당시 43,815명으로 출발하여, 1980년 시로 승격될 당시 창원시 인구는 11만이었지만, 넘어서면서 현재는 인구 50여만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창원이 시로 승격된 후 지금까지 인구변동 추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창원시 인구구성과 인구추이(1980-1994)

(단위: 명, %)

구분 연도	인 구			인 구 증가율	가 구 수	가 구 당 인 구	인 구 밀 도
	계	남	여				
1980	111,691	59,739	51,952	9.89	26,148	4.3	905
1981	128,095	68,754	59,341	14.69	29,577	4.2	905
1982	134,737	72,023	62,714	5.19	31,288	4.3	1,091
1983	143,429	76,686	66,743	6.65	34,313	4.2	1,163
1984	160,402	84,755	75,647	11.83	39,009	4.1	1,295
1985	173,508	91,426	82,117	8.17	43,698	4.0	1,402
1986	188,961	99,683	89,278	8.91	46,568	4.1	1,528
1987	214,829	112,905	101,924	13.69	54,112	4.0	1,727
1988	253,321	133,781	119,540	17.92	65,087	3.9	2,037
1989	303,108	160,877	142,231	19.65	78,642	3.9	2,437
1990	323,138	168,798	154,340	6.61	88,224	3.7	2,597
1991	357,838	184,132	173,706	10.74	108,241	3.3	2,876
1992	384,816	197,723	187,093	7.54	114,988	3.3	3,090
1993	399,393	204,720	194,673	3.79	118,554	3.3	3,206
1994	420,286	215,154	205,132	5.23	124,344	3.4	3,374

(자료: 1995년도 창원시 통계연보, 1995년도 경남통계연보)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4년동안 창원시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10.75%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간동안 경상남도의 인구증가율은 1.13%,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증가율은 1.07%⁷⁾와 비교해 보면 약 10배 정도의 인구증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증가는 그 지역의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와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합하여 나타낸다.

창원시의 경우 〈표 2〉와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인구증가와 자연적인 인구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표 2〉 창원시 인구의 연도별 사회적 증가현황

(단위: 명, %)

연 도	전 입 자 수	전 출 자 수	사회적 증가수	사회적 증가율
1986	52,334	41,140	11,194	6.45
1987	70,834	46,754	24,080	12.74
1988	90,181	57,625	32,556	15.15
1989	96,553	61,433	35,120	13.86
1990	101,962	75,208	26,754	8.83
1991	114,392	84,126	30,266	9.37
1992	129,320	118,683	10,637	2.97
1993	96,628	89,699	6,929	1.80

(자료: 창원상공회의소/경남신문사. 21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심포지움자료. p.15)

1986년부터 1993년까지 8년 동안 인구증가는 창원시의 공단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경남의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유입인구가 급증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증가가 인구증가를 주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연적 증가가 사회적 증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국의 인구증가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당해 기간 중 자연증가율은

7) 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4. p.41, p.461.

모두 2%를 넘어 전국의 증가율 0.9%대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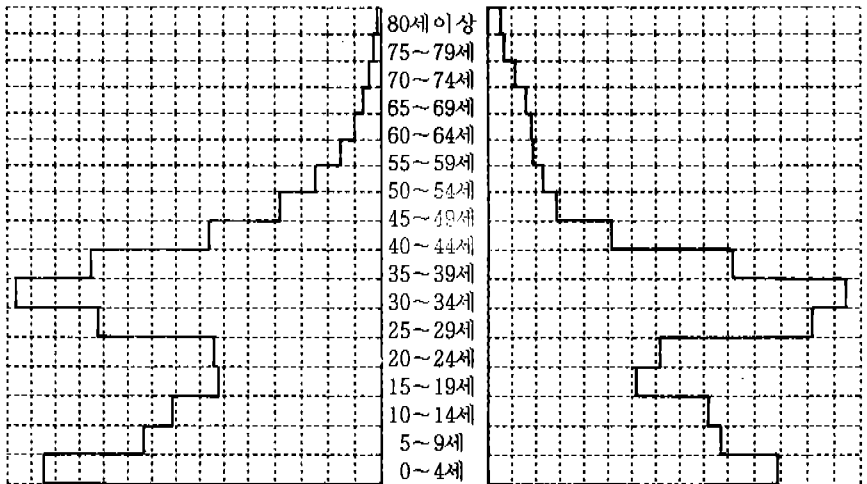
〈표 3〉 창원시 인구의 연도별 자연적 증가 현황

(단위 : 명, %)

연 도	출 생	사 망	자연적 증가수	자연적 증가율
1986	4,024	538	348	2.00
1987	4,470	594	387	2.05
1988	5,918	618	530	2.47
1989	7,335	751	658	2.60
1990	8,390	771	761	2.51
1991	10,205	890	931	2.88
1992	10,831	958	987	2.76
1993	10,483	1,048	9,435	2.45

(자료 : 창원상공회의소/경남신문사. 21세기를 향한 창원시의 좌표와 발전과제 : 심포지움자료. p.16)

(단위 : %)



〈그림 1〉 창원시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조(1994년 12월 31현재)

자연적 인구증가율이 높은 주요한 이유는 <그림 1>의 성별·연령계층별 인구구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출산력이 높은 연령대인 25세에 39세까지의 계층이 전시민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젊고 출산력이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0-4세의 인구구성 비율이 12.7%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의 한국의 성별·연령 계층별 인구구성에서는 0-4세의 비율이 8%인 것과는 비교해 보면 더욱 젊고 출산력이 높은 도시임을 알 수 있다.

(단위 : 만명)

70세+	39					77
65~69	36					52
60~64	46					65
55~59	65					80
50~54	79					86
45~49	84					84
40~44	109					95
35~39	143					130
30~34	186					176
25~29	183		1990			183
20~24	182					156
15~19	179					172
10~14	175					168
5~9	178					167
0~4	158					137

<그림 2> 한국의 성별·연령 계층별 인구구조(1990년 현재)

창원시의 인구구조의 특징은 65세이상 노년층 인구구성비가 2.45%로 전국의 5.56%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가장 많은 인구를 보이는 연령대는 30대로 전체 인구의 24.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9세 이하가 21.8%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20대와 10대, 그리고 40대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하여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의 인구구성비에서 가장 많은 구성

비를 보이는 연령대는 20대로 19.17%, 그다음이 10대로 18.9%, 다음이 9세이하, 30대, 40대, 50대순으로 되어 있다.

창원시는 현재까지 10대의 인구구성비가 낮으므로 타도시에 비하여 비교적 청소년범죄 문제가 적은편이나 9세이하 인구구성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유치원 취원율이 1994년 현재 28.1%로, 전국 평균 38.7%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인근 마산시의 취원율 30.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주요한 요인은 유치원수의 증대가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함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분석되어지고 있다⁸⁾.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에 있어서도 학급당 학생수가 45명으로, 전국 37.7명, 마산의 42.4명보다 열악한 실정이다.⁹⁾

1993년 말을 기준으로 창원시의 중분류 산업별 종사업체 종사자수와 이에 따른 비율은 다음과 같다.¹⁰⁾

총수 147,687명(100.0%), 농업, 수렵업, 임업 50명(0.0%), 어업 0명, 광업 7명(0.0%), 제조업 83,591명(56.6%), 전기, 가스, 수도사업 403명(0.3%), 건설업 6,853명(4.3%),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15,517명(10.5%), 숙박, 음식점업 7,593명(5.1%), 운수, 창고, 통신업 4,829명(3.3%), 금융, 보험업 3,685명(2.5%),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4,568명(3.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 5,615명(3.8%), 교육서비스업 5,442명(3.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356명(0.9%), 기타 공공 및 사회, 개인서비스업 8,178명(5.5%)로 구성되어져 있다.

상기에서 알수 있듯이 창원시에서는 사업체 기준으로 15만명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57%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공공행정, 교육 기타 사회,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가 모두 합하여 약 15%를 점하고 있어 공단 배후도시에서 도단위 행정중추도시로의 이행과정을 엿볼 수 있다.

8) 경상남도교육청, 경남통계연보, 1995. pp. 51-60.

9)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신문사, 전게서. p. 46.

10) 경상남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4. pp. 86-309.

3. 창원시 주민 통합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주도해왔던 성장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에서 삶의 질을 토대로 한 발전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로의 대전환을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는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한 지역사회가 유기적인 협조아래 한 덩어리가 되어 협조해 나가는 사회통합력이 그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신생도시이므로 외지 유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고 주민의 거주기간도 대단히 짧다. 현재 거주지 선택동기에 대한 사회조사에서 ‘옛날부터 살아와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창원시의 경우 13.37%로, 인근 진주 26.24%, 진해 36.31%보다¹¹⁾ 외지 유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1>과 <표 2>를 분석해보면 1986년 한해동안 창원시 인구 188,961명에 49.5%에 해당하는 93,474명이 전출·입자이며, 1989년은 303,108명에 52.1%에 해당하는 157,985명, 1992년은 384,816명에 64.4%에 해당하는 248,003명이 한해 동안 창원시이외의 지역에서 전입했거나 전출한 숫자이다. 그러나 1993년에는 창원시 인구 399,393명에 186,327명의 전출·입하여 그 비율이 46.6%로 낮아지고 있다.

상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원 시민들은 창원을 ‘내가 사는 곳’, ‘나의 도시’, ‘우리 도시’라는 의식은 대단히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회지표조사에서 교통 등 도시여건과 경제구조의 발달로 도내 어느 도시보다 자가용 보유비율이 높으며¹²⁾, 거주 지역사회의 전반적 평가에서 살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70.92%로, 울산 27.60%, 마산 52.24%, 진해 67.5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년 후 지역사회의 예상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66.85%가 좋아질 것으로 응답하여, 울산 54.20%, 마산 56.40%, 진주 58.32%, 진해 60.00%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간의 친밀도 조사에서도 잘알고 지내는 비율이 65.69%로

11) 경상남도, 경남의 사회지표, 1994. p.372.

나타나고 있어¹³⁾ 도시발전에 청신호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 여가시설 만족도 및 불만사유에 대한 질문에 52.00%가 불만으로 응답하였으며, 66.60%가 시설의 절대부족을 불만사유로 응답하였다.¹⁴⁾

상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력을 바탕으로한 도시의 양적팽창에 치중한 나머지 시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실을 지닌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는 부족한 점이 있는 도시로 지적되어진다.

향후 창원시의 절대적인 과제가 시민생활의 구심점 형성의 문제이다. 시민생활의 구심점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므로 역사가 일천한 창원시는 원래로 는 구심점이 미약한 것은 불가피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유입인구의 비율이 높은 창원시는 생활권 단위로 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대안 이 제시되어져야 할 시점에 와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창원도시기본계획, 1993년'에는¹⁵⁾ 창원시 전체를 대생활권 으로서, 3-6개의 소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중생활권으로는 상북 중생활권(5개의 소생활권), 중앙 중생활권(6개의 소생활권), 상남 중생활권(3개의 소생활권), 가음 중생활권(3개 소생활권), 기타 중생활권(4 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21개의 소생활권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이들 소생활권 단위로 마을공동체 의식 고양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 2항에 제시하고 있는 공립문고¹⁶⁾ 성격인 마을 도서관을 행정동 단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주민통합의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12) 자가용 1대당 인구조 창원7.7명, 울산 8.6명, 마산 11.3명, 진주 10.7명, 진해 11.5명(경상남도, 경남사회지표, 1994. p.292)

13) 경상남도, 경남사회지표, 1994. pp.382-386.

14) 삼계서, pp.426-429.

15) 창원시, 시정백서, 1995. pp.499-507.

16) 제39조 2항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Ⅲ. 창원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현황분석

현황분석에는 창원시내에 소재한 2개의 공공도서관과 주민들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파동성마을도서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 복지회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봉곡마을도서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시설현황

창원지역에는 2개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져 있다. 1983년 11월 16일 개관한 창원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부지 12,178㎡ 건물5,395㎡, 열람석 1,673석, 시청각실 169㎡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3년 12월 14일 개관한 창원시립도서관은 부지 6,600㎡ 건물 5,497㎡ 열람석 1,210석, 시청각실 168㎡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¹⁷⁾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마을도서관 갖기운동의 일환으로 1995년 7월 23일 개관한 도서관이다. 현재 사파동성아파트 1800여 세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시설은 30평 규모의 단층 독립건물과 열람좌석 20여석을 확보하고 있다.

창원시에는 신도시 및 공단지역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경제사회 및 문화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이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9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져 있다. 이들 9개 복지회관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¹⁸⁾

〈표 4〉와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였으나 창원시 사회진흥과 자체평가 자료에 의하면 마을학교, 공부방외에는 상시 활용되지 않으며, 공부방은 중·고등 학생의 하교후에만 이용되고 있어 낮에는 텅빈 건물로 방치되며 어린이 놀이터로

17) 문화체육부, 95년도 전국공공도서관 현황, pp. 84-89.

18) 창원시 사회진흥과, 창원시 마을회관운영 활성화 계획, p. 1.

〈표 4〉 복지회관 시설현황

(단위: 평)

동 별	개소	1 층		2 층	
		8 개 소	9 개 소	9 개 소	8 개 소
동정동	1	노인실 (13.0)	회의실 (14.0)	공부방 (14.0)	청소년실 (13.0)
팔용동	1	노인실 (10.0)	다목적실 (14.0)	공부방 (13.0)	청소년실 (15.7)
봉곡동	1	노인실 (22.4)	회의실 (14.0)	공부방 (41.0)	마을학교 (22.4)
	1	음악감상실 (20)	다목적실 (33.6)	공부방 (20.0)	도서관 (33.6)
사림동	1	중고품교환 (30)	무료식당 (60.5)	공부방 (30.0)	독서실 (60.5)
반지동	1	노유자실 (23.4)	다목적실 (37.0)	공부방 (38.5)	청소년실 (23.9)
대원동	1		회의실 (55.0)	공부방 (36.0)	
사파동	1	노유자실 (23.4)	다목적실 (45.7)	공부방 (45.7)	청소년실 (25.3)
중앙동	1	노유자실 (20.5)	다목적실 (25.4)	공부방 (18.7)	청소년실 (15.7)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¹⁹⁾

이에 복지회관 운영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창원시에서는 마을도서관 갖기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는 기존의 복지회관을 마을도서관으로 개편하여 자료물 통한 정보봉사, 사회교육봉사, 문화예술봉사 등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다.²⁰⁾

이에 따라 1995년 8월 30일 봉곡동 복지회관내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하게 되었다. 현재 봉곡동 마을도서관은 33.6평 규모에 35석의 열람석을 확보하고 있다. 나머지 복지회관에도 개관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인력을 이미 확보하여 자체교육 중에 있다.

19) 상계자료, 동면.

20)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원시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1995, p.3.

2. 조직 및 직원현황

창원도서관에는 지방서기관 관장아래 사서과, 열람과, 서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을 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무과장에는 지방행정사무관을 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총직원수는 43명으로 행정직 5명, 사서직 16명, 기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지방행정사무관 관장아래 사서계, 열람계, 서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서계장은 지방사서주사를, 열람계장과 서무계장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하도록 하고 있다. 사서직 전문관장제 도입문제와 아울러 사서직의 고유업무인 열람업무까지 행정직으로 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원시 시정백서에 수록된 창원시립도서관 업무분장표에 의하며, 열람계 업무는 각종 도서열람 및 관리, 각종 독서행사에 관한 사항, 신간도서 및 자료홍보에 관한 사항, 각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대출 및 회수, 장서관리에 관한 사항, 파손도서 색출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서고관리, 도서열람 통계에 관한 사항, 이동문고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²¹⁾ 되어 있어, 사서직의 고유한 업무를 행정직 계장이 관장토록 되어 있는 현재의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현재 창원시립도서관에는 행정직 4명, 사서직 9명, 기타 10명 총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²²⁾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의 운영은 최고 의결기구로 입주자 대표회가 있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예산 및 결산과 운영규정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있어, 도서관 시설 및 기본운영에 관한 사항, 도서관 제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도서구입 및 장서구성에 관한 사항, 재정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매분기별로 입주자 대표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²³⁾ 실무는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파견된 사서 1인과

21) 창원시, 시정백서, 1995. p.171.

22) 문화체육부, 전계자료. pp.88-89.

23)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정, 제3조, 8조 참조.

사회교육전문요원 1인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부자원봉사요원 30명 내외, 청소년 자원봉사요원 5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

봉림복지회관에 설치된 봉곡마을도서관의 운영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파견된 사서1인, 사회교육전문요원 1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96년 개관될 나머지 마을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금년 12월에 사서 4인, 사회교육전문요원 6인을 채용하여 개관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3. 자료 및 예산현황

창원도서관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 101,592권의 도서와 88종의 연속간행물, 1,744종의 시청각자료, 7,753책의 연간 증가책수를 기록하고 있다. 예산은 총운영비가 794,071,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566,472,000원(71.3%), 자료구입비 55,728,000원(7%), 기타운영비 171,871,000원(21.6%)로 구성되어 있다.²⁴⁾ 총예산 중에서 자료구입비에 대한 비율이 7%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에서는 도서관의 총예산액 중 인건비에 65-70%, 자료구입비에 15-20%, 운영비에 5-10%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²⁵⁾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인건비에 50-60%, 자료구입비에 15-20%, 경상운영비에 20-30%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²⁶⁾ 창원도서관은 이러한 기준들에 비해 자료구입비에 대한 비율이 부족한 실정이다.

창원시립도서관은 1994년 12월 31일 현재 46,591권의 도서와 312종의 연속간행물, 3,092점의 시청각자료, 28,950권의 연간증가 책수를 보이고 있어, 개관한지 1년동안 외형적인 자료증가수에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산은 총

24) 문화체육부. 전개서. p. 85.

25) R. Bowler, 장일세 역. 공공도서관 운영.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9. p. 134.

2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 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81. p. 23.

운영비가 1,244,331,000원으로 이중 인건비 311,190,000원(25%), 자료구입비 373,429,000원(30.0%), 기타운영비 559,712,000원(45%)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인건비에 대한 구성비가 적으며, 상대적으로 자료구입비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²⁷⁾

사파동성마을도서관의 장서현황은 1995년 12월말 현재 1995년 7월 23일 개관한 이후 자체구입도서 1,310권, 주민기증 864권, 창원도서관에서 단체 대출받은 도서 1,578권, 책사랑에서 단체 대출받은 도서 1,514권, 한국도서관협회 기증 57권, 창원도서관 기증 537권, 합계 5,860권의 장서로 봉사하고 있다.²⁸⁾ 예산은 개관한지 얼마되지 않아, 월 운영예산을 살펴보면 대충의 연간예산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월 수입은 입회비, 후원회비, 사회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수익금, 아파트 복지관 어린이집 임대료²⁹⁾ 등 합계 2,500,000원이며, 지출은 인건비 1,300,000원(52%), 자료구입비 300,000원(12%), 기타 운영비 900,000원(36%)로 구성되어 있다.

1995년 8월 30일 개관한 봉곡마을도서관의 장서현황은 1995년 12월말 현재 구입도서 1,707권, 기증도서 1,065권, 기존 공부방도서 800여권, 합계 3,572권 중에서 자료의 훼손이 심하거나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 580권을 제외하면 3,000여 권으로 봉사하고 있다. 1996년도에 개관할 나머지 복지회관내의 마을도서관을 포함하여 시설비 1억 5천만원, 연운영비(인건비, 관리비 포함) 2억여원이 창원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으며, 자료구입비 등에 대하여도 증액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³⁰⁾

4. 이용현황

27) 상계서, pp. 88-89.

28) 1995년·사파동성마을도서관 운영평가서.

29) 아파트단지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민간에 임대료 주어 임대료 수입 100만원을 마을도서관 운영비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회원가입비 5,000원 외에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음.

30)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실무자와 인터뷰 자료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이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

먼저 각 시·도별 일반인과 학생이용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³¹⁾

<표 5> 각 시·도별 일반인과 학생이용자 구성비

시 · 도	일 반	학 생	시 · 도	일 반	학 생
서 울	3,381,486 (35.7%)	6,089,381 (64.3%)	총 북	513,453 (37.6%)	851,872 (62.4%)
부 산	1,438,539 (48.2%)	1,546,921 (51.8%)	총 남	409,945 (29.2%)	999,510 (70.8%)
대 구	1,289,742 (47.5%)	1,428,290 (52.5%)	전 북	534,549 (36.7%)	921,684 (63.3%)
인 천	788,052 (32.7%)	1,619,057 (67.3%)	전 남	563,780 (30.0%)	1,315,829 (70.0%)
광 주	1,486,953 (52.9%)	1,323,907 (47.1%)	경 북	942,408 (33.1%)	1,904,716 (66.9%)
대 전	917,809 (45.2%)	1,114,122 (54.8%)	경 남	1,067,759 (34.1%)	2,065,952 (65.9%)
경 기	2,270,765 (45.7%)	2,723,937 (54.3%)	체 주	312,819 (50.0%)	312,833 (50.0%)
강 원	623,965 (31.4%)	1,363,878 (68.6%)	합 계	16,542,024 (39.3%)	25,581,889 (60.7%)

(자료 : 문화체육부, '95년도 전국공공도서관 현황)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이용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서관 이용 관행에 따라 열람석만을 이용하는 부류가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1) 문화체육부, 전게서, pp.6-7.

이러한 공부방화 현상은 시·도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충남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 전남, 강원, 인천, 경북, 경남순으로 그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경남은 전국 평균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창원도서관의 경우에는 일반이용자 95,586명(55.4%), 학생이용자 76,853명(44.6%)이며, 창원시립도서관은 일반이용자 155,472명(40%), 학생이용자 233,208명(60%)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³²⁾. 두 도서관을 합한 일반과 학생이용자와의 구성비가 44.7% : 55.3%를 보여주고 있어 전국 평균치 보다는 공부방화 현상이 약한 편이지만 주요 이용자군은 학생들로 열람실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상기 통계수치에서 특이한 점은 1983년 개관하여 10만여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는 창원도서관에 비하여 1993년 12월에 개관하여 4만6천여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있는 창원시립도서관의 이용자수가 2.25배 높게 나타남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이 개관하기전 1993년도 창원도서관 이용자수는 관내 192,880명, 관외 44,457명 총 237,337명으로³³⁾ 1994년도에 비하여 1.4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많은 이용자군이 냉·난방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창원시립도서관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과 창원시립도서관의 위치가 주택지와 인접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장서수에 관계없이 생활주변의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책수 현황은 1994년 한해 동안 창원도서관의 경우 열람 71,265책, 대출 114,077책으로 합계 185,342책을 이용하였고, 창원시립도서관은 열람 115,824책, 대출 79,250책으로 합계 195,074책의 이용책수를 보이고 있다³⁴⁾. 창원시립도서관이 개관하기 전인 1993년도 창원도서관 이용책수 현황은 관내 62,991책, 관외 105,899책으로 합계 168,890책을 이용하였다.³⁵⁾ 이용책수 현황에서 이용자들은

32) 문화체육부, 전개서. pp.84-89.

3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93. pp.36-37.

34) 문화체육부, 전개서. 동년.

35) 한국도서관협회, 전개서. 동년.

장서규모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군은 열람석을 이용하는 이용자군에 비하여 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음을 알 수 있다.

창원도서관은 차량 1대로 이동도서관을 운행하고 있는데 연간 이용지수가 14,550명에 42,912건의 이용책수를 보여주고 있으며, 순회문고를 통하여 1,370책이 연간 이용되고 있다.³⁶⁾

사파동성아파트 1,800여 세대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1995년 8월-10월 임시시범 운영단계를 거쳐, 정상 운영한 12월 현재 한달 동안의 이용현황은 회원가입수 일반 199명, 어린이 126명이 하루평균 이용자 일반 83명, 어린이 110명(사회교육 수강자 수 포함), 하루평균 대출자 일반 20건, 어린이 39건 합계 59건의 대출을 하고 있다.³⁷⁾

봉곡마을도서관은 1995년 11월, 12월 2달 동안 열람인원 1,483명, 대출책수 755책, 1일 평균 열람 30.3명, 대출 15.4책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³⁸⁾

타지역에 비하여 고학력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교실에 대한 호응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단적인 예로 창원시립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강좌 성인 오전반의 경우 30명 모집에 270명-280명이 신청하여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⁹⁾

그 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문화교실실시현황

도서관명	강좌명	대상	기간	참여인원(연간)	1회인원 및 회수
창원 도서관	동양화	주부	10개월	80명	80명, 연1회
	영어회화	주부	3개월	60	60명, 연1회
	일본어	주부	10개월	80	80명, 연1회

36) 문화체육부, 진게서, 동면.

37) 1995년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운영평가서

38) 1995년 봉곡 마을도서관 운영평가서.

39) 95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 자료집, '세계화 지향의 도서관 문화강좌', p.35.

도서관명	강좌명	대상	기간	참여인원(연간)	1회인원 및 회수
	서예	주부	10개월	80명	80명, 연1회
	미술	주부	3개월	80	80명, 연1회
	한문	주부	10개월	80	60명, 연1회
	어린이 영어	국민학생	10개월	60	30명, 연3회
창원시립 도서관	컴퓨터(오전)	일반인	3개월	90명	30명, 연3회
	컴퓨터(오후)	일반인	3개월	90	30명, 연3회
	컴퓨터(아동)	아동	3개월	90	30명, 연2회
	영어초급	일반인	5개월	60	30명, 연2회
	영어중급	일반인	5개월	60	30명, 연2회
	영어아동	아동	5개월	60	30명, 연2회
	중국어	일반인	6개월	60	30명, 연2회
	일어	일반인	6개월	60	50명, 연3회
	주부노래	주부	3개월	150	30명, 연3회
	사진	일반인	3개월	90	30명, 연3회
	비디오	일반인	3개월	90	30명, 연3회
	한문	일반인	3개월	90	30명, 연3회
	문학강좌	일반인	2개월	30	기수료후폐강
사과동성 마을 도서관	어린이오름학교	아동	8.10~25	50명 수료	
	학습능력개발	청소년	8.11~12	10	
	프로그램				
	마을캠프	아동	8.26~27	50	
	생활문화대학	주부	10.25~31	20	
	건강관리교실	주부		8명(실시중)	주1회 5주 과정
	머리손질교실	주부		8명(실시중)	주2회 2개월
제과제빵교실	주부		23명(실시중)	주1회 2개월	

도서관명	강좌명	대상	기간	참여인원(연간)	1회인원 및 회수
	구연동화교실	아동		20명(실시중)	주2회 1개월
	영어교실	아동		20명(실시중)	주2회 1개월
	노래교실	주부		35명(실시중)	주2회 1개월
	기타교실	주부		12명(실시중)	주2회 1개월
봉곡마을 도서관	미리가보는교실	국1, 중1	2월중	20명수료	
	학습능력개발 프로그램	청소년	2월중	25명	시간관리, 정신 집중전략
	노작교실	국교생	봄, 가을	70명(1기35, 2기25)	글쓰기, 심상개발
	종이접기교실	7세, 국3	3, 5월중	75명(1기45, 2기30)	종이접기
	그림나라교실	국교생	4, 12월중	75명(1기45, 2기30)	그림실기, 감상
	GMP영어교실	청소년	5~6월중	10명	생활영어
	후회없는 자녀 지도교실	주부	7~8월중	20명	대화기법 등
	머리손질교실	주부	8, 12월중	40명(1기20, 2기20)	파머, 캣트 등
	주부노래교실	주부	9~12월중	60명	발성법, 노래배움
	연기교실	국교생	9~12월중	30명	내면연출, 대본

〈표 6〉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공공도서관은 비교적 수개월 단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마을도서관은 단기간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으로 창원도서관은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125명이 참가한 독서교실을 실시하였으며, 3개 독서회에 155명의 독서회원을 갖고 있다. 창원시립도서관은 국민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50명이 참가한 독서교실을 실시하였으며, 3개 독서회에 119명의 독서회원을 갖고 있다.

40) 문화체육부, 전게서. pp.119-120.

IV. 이용자 확보 방안

모든 전문 직업군에는 나름대로의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환자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고, 법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를 찾는다. 정보가 필요하면 사서를 찾는 것이 일반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도서관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사서직이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사서직이 생존을 위한 직업적 자존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이용자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정보고속도로가 깔렸을 때 지금과 같은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나타나 그 기능을 대체하지 않을까?

도서관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사회적 장치가 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변화하지 않을 때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나타나 그 기능을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생활주변에 도서대여점이 나타나 성업을 이루고 있는 현상은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였거나 생활주변에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사회적 장치가 아닌가?

제2장의 창원시 주민·지역사회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원시는 중공업단지의 공단 배후도시로서 외지 유입인구가 주민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학력과 경제력도 어느 지역보다 앞서고 있다. 하지만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불만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앞에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하나로 마을도서관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 하자는 것이다. 지역사회가 마을도서관을 통한 공동체가 확립되어지면 삭만한 도시 문화가 이웃이 있는 도시로 바뀌어갈 것이며, 지역주민은 도서관 역할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하여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신뢰성이 확보되어져 기본이용자군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질 것이며, 사서직은 직업적 자존심을 가지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에게 봉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창원시 지역사회·주민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소생활권 단위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 기존 확보되어져 있는 시설들에 이용자를 최대한 유인하여 사서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적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마을 공동체 : 다윗의 물뿔 전략

현재 50 여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대도시로 성장한 창원시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창원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5개의 중생활권과, 21개의 소생활권(근린주구 단위)으로 구분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근린주구 단위 시설로는 초·중·고등학교, 구매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등의 시설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⁴¹⁾,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속으로 스며드는 소생활권내의 시설의 등장과 이에 담아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창원 도시기본계획(1993년)’에는 창원시 전체를 대생활권으로 하여, 교육, 문화, 구매 등 일상생활을 자체내에서 자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족적 완결도시로 설정하고, 아래로 상북 중생활권, 중앙 중생활권, 상남 중생활권, 가음 중생활권, 기타 중생활권 등 5개의 중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상북 중생활권 에는 서상, 동정, 도계, 명곡, 봉곡 등 5개 소생활권(근린주구 단위)에 17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 중생활권에는 반지, 두대, 중앙, 반림, 용호, 사림 등 6개의 소생활권에 13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상남 중생활권에는 사과, 신월, 상남 등 3개의 소생활권에 1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음 중생활권에는 가음, 남산, 대방 등 3개소 생활권에 10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1) 창원시, 시집백서, 1995. pp.502-507.

기타 중생활권에는 양곡, 성주, 군지역(창원군, 김해군) 등 4개의 소생활권에 5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⁴²⁾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39조 2항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읍·면·동단위에 1개 이상의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3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에 사립문고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창원시에는 21개 소생활권에 21개의 공립문고 성격의 마을도서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 업체 42개,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32개 지역에 사립문고 성격인 마을도서관 설립이 가능한 실정이다.⁴³⁾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는 공립문고 성격인 봉곡마을도서관과 사립문고 성격인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을 1995년도에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고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이웃이 있고 정답이 있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운동의 일환인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은 지역 주민이 지적 욕구를 갖고 함께 모이는 장소로서의 마을 도서관, 마을학교를 통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사회교육기관, 마을의 건강한 삶과 문화를 갖기 위한 지역공동체 삶을 공유하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의 ‘마을’의 개념은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지고 있다.⁴⁴⁾

“마을은 사전적 의미로 ‘여러 사람이 한 동아리를 이루어 모여 사는 지역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총탁’을 말한다. 즉 마을은 가정과 지역 사회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한 동아리’의 삶의 터전을 말한다.

42) 삼계서, pp. 501-507.

43) 안희숙, “마을도서관 확산을 위한 지역계획,” 도서관인의 맥, 제7집(1994), pp. 18-21.

44) 경남 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비전21, 마을을 열자, 미래를 열자! (프린트물)

과거 전통사회에서 마을은 생산과 생활의 기초단위로서 두레·향약이라는 아름다운 유산을 간직한 곳이었다. 하지만 점차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이 분리되었고, 이는 과거 전통사회의 붕괴, 이농, 인구의 도시집중 등으로 파생된 사회적 병리현상을 만들어내는 바퀴 없는 기차를 굴러왔다. 급기야 바퀴없는 기차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물질만능의 신화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이합집산된 우리는 새로운 정착지에 뿌리를 내렸지만 서로 삶을 나눴던 마을은 찾아볼 수 없다. 행정동, 아파트 단지에서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서로가 낯선게 현실이다. 새롭게 재편된 구조속에 '마을'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과거 전통사회에서 공동체로 묶어주던 두레, 향약, 계 등의 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새로이 재해석해 낼 수 없을까? '전지구화(globalization)'라는 지구적 연대의 경향 속에 자칫 '세계화'는 꼭두놀음에 불과한 것이 되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사회도 결국은 사회의 가장 기초집단 속에서 풀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의 자유, 삶의 질, 삶의 안정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결국 개인이 소속한 기초집단의 사회적 연대, 즉 마을공동체 속에서 가능한 것이고, 이는 사회적 정의와 참다운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는 가정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의 정수로 지역공동체의 핵이 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다윗의 돌맹이가 되리라 본다.”

마을공동체 운동의 기본축은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마을도서관을 세우는 일이다. 마을도서관을 중심으로 전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교육 패러다임인 마을학교를 운영하며, 여기서 배양된 힘을 바탕으로 마을 문화·예술제를 실시하여 살맛나는 이웃을 만드는 것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다.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마을도서관에 실시하고 있거나 구상 중인 마을학교·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표 7>과 같다.⁴⁵⁾

45) 상계자료 내용중에서 추출한 자료임.

〈표 7〉 마을학교 · 문화예술 프로그램

대 상	교 실 명	내 용
유 아	공동육아교실	육아양육을 공동으로 모색 (학부모회 구성)
어린이	방과후교실 지구촌 교실 지도력 교실 체능교실 농촌교실 취미교실 글쓰기교실 노래교실	학교수업의 보충 세계각국의 문화 · 풍습 · 지리 등의 학습 등 회의 진행법, 토론법, 글쓰기 및 독서생활 축구, 럭비, 수영, 배드민턴, 탁구 등 자연, 식물체집, 자연사랑 등 독서, 여행, 캠프, 해양탐사 등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마을어린이 합창단 구성
청소년	방과후교실 지구촌교실 지도력교실 어린이체능지도자 교실 연극교실 독서교실 노래교실 취미교실 사랑방	학교수업(국·영·수)보충 세계각국의 언어, 문화, 풍습, 지리 등의 학습 회의진행법, 토론법, 연설문작성, 연설법, 글쓰기 및 독서생활 어린이들에게 각 체능활동의 지도를 통해 지도자 의 식기름 연극이론, 연극과 자기표현, 대사익히기, 연극의 실제 바른독서법, 독서토론,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청소년 중창단, 기·타모임 등 여행, 캠프, 탐사, 문학기행, 스포츠 등 진로문제, 이성, 가정 등에 대한 토론모임
청 년	레크레이션교실 여가교실 취미교실 사랑방	레크레이션지도법, 이론과 실제 등 산행, 낚시, 스포츠 등 사진작가, 비평가여행, 문학기행, 역사기행 등 결혼, 가정, 사회, 경제, 문화 등의 주제로 토론모임

대 상	교 실 명	내 용
여 성 (주부)	여성자신교실 취미교실 교양교실 컴퓨터교실 부부사랑교실 사랑방 독서교실 가정교실 여가교실	부부관계, 소비자, 환경, 여성, 자녀교육, 문학등 종이접기, 꽃꽂이, 실내인테리어, 사진, 수예 등 강좌 : 가정의료, 가정세무, 구연동화, 자동차 등의 주제 컴퓨터의 이론과 실기 부부관계회복, 부부역할훈련, 여행 등 토론모임 : 여성, 소비자, 자녀교육 등의 주제로 독서토론, 자녀독서지도법, 글쓰기 등 가정법률, 관혼상제, 가정의료, 세금 등 사진, 문학, 역사기행, 스포츠 등
남 성	가장교실 취미교실 사랑방 가족신문편집교실 건강교실	가장의 역할, 자녀교육, 부부관계 등 낚시, 산행, 실내인테리어 등 토론모임 :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주제 가족신문의 이론과 실제 명상, 요가, 식생활 개선법 등
공 통	기차여행 역사기행 자원봉사교실 해양캠프, 해 탐사대	가족이 함께 일정코스를 선정해 여행함
문화·예술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축제 * 가족동요부르기 대회 * 마을음악회 * 울리 농산물 직거래 * 청소년 문화마당 * 알뜰바자회 * 마을갤러리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대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3항에서는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이라고 하고 있고, 미국의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1943)에서는 교육, 정보, 예술감상, 연구, 레크레이션 등의 다섯가지 목적을 제시하였고, 영국도서관협회의 ‘공공도서관의 목적’(1971)에서는 교육, 정보, 문화, 여가를 공공도서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⁴⁶⁾

위에 제시된 마을교실과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문화활동과 평생교육에 해당되며,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1943)의 교육, 예술감상, 레크레이션에 해당되며, 공공도서관 기준(1971)의 교육, 문화, 여가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므로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개관한 지 5개월 정도되는 사과동성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사과동성마을도서관을 방문하여 이용 중인 몇 명의 어린이와 대화한 내용을 요약·소개하면 아래와 같다.⁴⁷⁾

백과사전을 이용하여 방학숙제도 하고, 동화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다른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을도서관 자랑도 하고, 마을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실에 참가하여 영어도 배우고 있어 자랑스럽다.

마을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 가꾸어가고 있는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만족해 하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을 연상케 한다.

그동안 앵무새처럼 반복되어 온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은 아주 작은 개념의 ‘마을’이란 물맷돌이다. 마을도서관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사서직은 지역사회에 신뢰성이 확보되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정보가 필요한 사람은 사서를 찾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기본이용자

46) 이용남, “공공도서관 목적의 구조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한국문헌정보학회), 제22집(1992.6), pp. 42-47.

47) 사과동성마을도서관 이용중인 국민학생들 몇명과 대화내용을 요약한 것임.

군을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될 것이고, 사서들은 이들에게 직업적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반시설 확충 : 선과 축의 연결

창원시에는 5개의 중생활권이 있다. 이 중 중앙 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중앙동과 용호동에 창원도서관과 창원시립도서관이 세워져 있다. 그리고 창원시에는 상북 중생활권과 가음 중생활권에 2개의 공공도서관 설립계획 중에 있고, 21개 소생활권 중 봉곡 소생활권과 사파 소생활권에 마을도서관이 세워져 있고, 1996년 상반기 중에 대원동과 팔용동에 마을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고, 여타 지역에도 마을도서관을 행정동과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⁴⁸⁾ 이용자 확충을 위하여는 생활주변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 주변에 도서대여점이 성업중인 것도 생활주변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창원시에서는 공립문고 성격인 마을도서관을 마을단위로 세우는데 행정책임자의 의지도 있고, 이를 실행할 민간단체인 '경남정보사회연구소'도 세워져 있어 운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과거 마을문고 운동이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농촌마을 단위로 세워진 마을문고가 상호 선으로 연결된 망과 이들을 지원해 줄 지역 공공도서관과 축으로 서로 연결 되지않아 점조직 상태로 독자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창원시에는 5개 중생활권 중 기타 중생활권을 제외하면 4개의 중생활권에 2개는 공공도서관이 세워져 있고, 향후 2개의 공공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이어서, 중생활권 단위에는 공공도서관이 모두 세워질 전망이고, 이들 중생활권 아래 21개의 소생활권에 세워질 마을도서관(공립문고 21개, 사립문고 종업원 300이상인 업체 42개,

48) 2개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은 '95 경남공공도서관대회에서 창원시장이 발표 하였으며, 행정동마다 마을도서관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민선시장인 창원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32개)은 상호 선과 축으로 연결되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0조 2항과 3항에서는 공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사립문고는 해당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과 축의 연결이란 중생활권내의 공공도서관과 소생활권내의 마을도서관이 연계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연계 운영이란 자료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하여는 개개 도서관 단위로 도서관자료 D/B화와 지역정보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창원지역에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RIN-NET (Reginal Information Network)을 지역정보망으로 가동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공단 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 분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전화로 인터뷰하였다.⁴⁹⁾

도서관 이용은 하고 싶다. 퇴근하고 나면 도서관 문은 닫혀 있다. 각종 자료를 기존 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자료도 통신망을 통하여 확인이라도 되면 이용하여 현장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계층이 창원공단 중간관리층에는 의외로 많았다. 지난해부터 한국기계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역정보망이 본격 가동되고 있어 통신망 이용자 수는 급증하리라고 본다. 지역 공공 및 마을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자 확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개 도서관 단위로 D/B가 구축되어 지역정보유통망을 통한 선과 축의 연결이 급선무이다.

49) 30대 중. 후반의 중간관리자들은 대부분 창원지역에서 자료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창원지역내 도서관 자료 확인을 위하여 정보망을 통한 도서관 봉사료 요구 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3. 합리적 운영 : 신뢰성 확보

창원지역의 공공 및 마을도서관은 이용자 확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어느 계층을 주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는 창원지역 주민들의 구성 분포와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대상 계층 선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제2장의 <그림 1>에서 창원지역 연령계층별 인구분포에서 9세 이하 21.76%, 19세 이하 15.31%, 29세 이하 18.99%, 39세 이하 24.71%, 49세 이하 9.80%, 59세 이하 4.65%, 69세 이하 2.98%, 70세 이상 1.80%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별 총 종사자 수에서도 15만 여명 산업체 종사자 수에서 56.6%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교육, 기타 사회 개인서비스업에 종사자가 약 15% 정도라는 것이 앞에서 분석되었다. 학생수도 총 95,672명 중 국민학생이 48.9%, 중학생 20.4%, 고등학생 17.5%, 대학생 1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창원지역의 주요한 계층이 30대와 제조업 종사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제3장 이용자 현황분석에서 창원도서관은 일반과 학생이용자 비율이 55.4% : 44.6%를 보였으며, 창원시립도서관은 40% : 60%를 나타내고 있다. 고등학교 이하 학생구성비가 창원인구의 18%를 점하고 있는데 반해 이용율은 55.3%를 점하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열람실 이용자도 추정되어진다. 이에 비하여 1일 평균 193명(일반 83명, 어린이 110명)이 이용되고 있는 사파동성 마을도서관은 이용자 대부분 자료이용자이거나 사회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들이다.

위의 예에서 창원지역의 주요한 계층인 30대와 제조업 종사자가 현재의 이용자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 현황에서도 대상자들이 창원도서관 7개 프로그램 중 6개 주부대상, 1개 국민학생, 창원시립도서관 13개 프로그램 중 일반인 10개(실제 이용자는 대부분 주부임), 아동 2개, 주부 1개, 사파동성

마을도서관 11개 프로그램 중 아동 4개, 청소년 1개, 주부 6개, 봉곡마을도서관은 총 10개 프로그램 중 국민학생 5개, 청소년 1개, 주부 대상으로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총 41개 프로그램 중 39%가 주부대상 프로그램이고, 29%가 국민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다.

창원지역에 거주하는 주요한 계층인 30대와 제조업 종사자들은 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에 대하여 현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들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은 이렇다.

월차 휴가날 도서관을 방문해 보았다. 입구에서부터 관료적인 분위기가 있고, 문인시대에 민원봉사 부서의 변화하는 모습이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었다.

토요일도 일을 하다 보면 4시경 퇴근한다. 도서관에 들리고 싶지만 집에 도착할 시간이면 도서관문은 이미 닫혀 있다.

사실실에서 도서관 소장자료를 사전에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이용하고 싶다.

이와는 반대로 최근 개관한 마을도서관을 방문하여 봉사시간대가 현재의 시간대에서 제조업체 종사자들이 퇴근한 후의 시간대로 조정이 가능한지를 담당사서에게 문의해 보니 대답은 이렇하였다.

일요일에 개관도 해보았고, 연장 개관도 하였지만 창원시의 특성상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보내고, 주말 부부들은 주생활 거주지로 떠나기 때문에 이용자가 별로 없어 현재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현장 사서들이 느끼고 있는 인식과 창원시의 주요한 계층인 30대와 제조업 종사자들의 인식의 폭을 좁혀 주는 방법은 없을까?

현재 창원지역 도서관의 주요한 이용자군은 주부들과 학생계층이다. 공공 및 마을도서관의 현재 마케팅 전략도 여기에 치중되어져 있다. 현재의 주요한 이용계층이 주부들과 학생들이므로 여기에 순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도서관이 주민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현재 창원시민의 주요한 계층구조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영기 논문에서 기본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 연구와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⁵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대안이 제시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주요한 계층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되어지면 이들 요구에 맞는 봉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창원지역 도서관들은 이용자 확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창원지역의 주요한 계층인 30대와 제조업종사자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도서관자료를 중심으로 봉사하는 조직체이므로 일차적으로 이들에게 맞는 장서개발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창원시의 주요한 계층인 제조업체종사자를 위하여는 산업 관련 자료개발이 중요할 것이다. 이들 계층에 기본 이용자가 확보되어지면, 다음으로 연령별로 주요한 계층은 9세이하, 20대, 10대, 40대 계층 순으로 기본이용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체 종사자의 15%를 점하고 있는 공공행정, 교육, 기타 사회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계층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기존에 어느 정도 기본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계층인 주부와 국민학생들에 대한 전략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 도서관들이 계층별로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장서개발이 이루어져 철저한 자료중심의 봉사가 이루어질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연장개관을 하여도 이용자가 찾지 않는다는 현장사서의 인식이 바뀌어질 것이다.

현재로서는 창원지역 도서관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계층의 요구에 맞는 장서개발이 급선무이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주요한 이용계층인 주부, 학생층에서 이용계층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도서관

50) 김영기, 전개논문, PP.196-197.

설립목적에 맞는 공중에 봉사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계층별 기본이용자 확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공공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이용자 확보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특히 창원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지방화시대와 외지 유입인구가 많은 창원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통합의 과제에 대하여도 얘기하였다. 창원시에 소재한 공공 및 마을도서관의 시설현황과 자료, 예산, 조직, 직원, 이용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용자 확보 방안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세운 마을도서관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여 대중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운동을 다윗의 물뱃돌에 비유하였다. 마을도서관이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창원시에 이미 세워져 있는 2개의 공공도서관과 향후 세워질 2개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중생활권의 위치에서 소생활권에 이미 세워져 있거나 세워질 마을도서관과 축으로 연결된 지원을 하여야 하며, 마을도서관끼리는 선으로 연결된 망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지역의 의식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서 도서관 갖기운동의 실행·연구 단체로서 주민들과 연대하여 운동성을 계속 확보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기본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도서관이 기본이용자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창원시의 주민구성 분포와 요구,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도서관운영 방향에 대하여도 이야기하였다.

과거 마을문고 운동은 농촌을 대상으로 시작된 운동이었고, 문고회라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운영하였다. 이능현상과 함께 문고회의 운동성 상실과 지적기반의 부족, 재정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실패하였다.

창원시를 중심으로한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은 과거 마을문고 운동과는 접근 방법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선 마을도서관 운영은 사서요원 1명, 사회교육전문요원 1명의 전담직원을 두어 마을단위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재정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의 이사들의 후원금과 창원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과거 도서관관련 운동들이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지적기반의 부족과 방향성 상실이었다. 그러나 연구소 내에는 지적기반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관련분야 대학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대학 강단에서 12년째 강의를 마치고, 13년째 맛을 자료준비차 인근 도서관들을 방문해 보았다. 과거와 다름없이 생동감있게 봉사를 하고 있는 사서들도 있었지만, 사서가 된 지 수 년만에 지쳐있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무엇이 이들을 지치게 만들었을까? 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그 동안 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는 현장사서들에게 동기부여하는 글들 보다는 사서들이 문제해결에 주체자로 나서지 못함에 대하여 지적하는 미시적 접근을 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다.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의 장서개발, 도서관운영 등에 대하여 주체자로 나서야함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관찰한 창원지역 공공도서관의 문제해결은 도서관 내부에서 출발되어지기보다는 도서관 주변의 환경에서부터 출발 되어져야 한다. 즉, 도서관 주변환경에서부터 출발된 거시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 주변환경 개선의 주체자는 누가 나서야 할 것인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중앙에 힘있는 자와 연을 닿을 수 있는 자가 문제해결을 가장 신속하게 하였다. 지방화 시대에는 의식있는 지역주민, 즉 의식있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변 환경 개선의 주체자로 나서야 한다.

의식있는 이용자를 점조직 상태로 그대로 두면 운동성을 확보할 수 없다. 창원시

의 경우 '경남정보사회연구소'라는 연구·실행단체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운동성을 확보하듯이 지방화 시대에는 지역단위로 운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구·실행단체 안에는 지역의 지식인들 뿐만아니라 도서관 문제에 관심있는 시의원들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일구어가면서, 시민의 정당한 요구를 시의회에 청원을 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서직 관장도 영입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이러한 운동의 방향성과 지적기반은 누가 제시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책임은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즉 문헌정보학과 교수들의 몫이다.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은 도서관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자의 입장에 서기 이전에 도서관 주변 환경을 개선시킬 운동성을 확보하는 일에 우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도서관 사서직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윗의 물맷돌 전략이 마을공동체 형성에 토대가 되어진다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에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본이용자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논문 및 단행본

- 경남매일, 慶南年鑑 1995. 마산, 경남매일, 1995.
 경상남도 교육청, 경남교육통계연보 1995. 창원, 경상남도 교육청, 1995.
 경상남도, 慶南의 社會指標 1994. 창원, 1995.
 경상남도, 事業體基礎統計調查報告書 1994. 창원, 1995.
 김세익, “學生으로 부터 市民에게로 ; 韓國 公共圖書館의 座標.” 도서관보, 제1호 (1992.9). pp.99-103.

- 김영기. “도서관 현상을 통해 본 공공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인식의 문제.”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第19輯(1992), pp.145-209.
- 김영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실진단과 대안.” 第33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集, 韓國圖書館協會(1995), pp.31-52.
- 김영신. “공공도서관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층의 이용 목적의 문제.” 韓南大學校論文集, 제17집(1989), pp.127-139.
- 김영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대중화 방안.” 도협월보, 제11권2호(1970), pp.41-48.
- 김정근, 장덕현.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발전의 현단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 제27집(1994.12), pp.3-74.
- 김포옥. “全北地域 公共圖書館의 發展策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第15輯(1988), pp.25-78.
- 문화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문화부, 1990.
- 문화체육부. 95년도 전국공공도서관현황. 서울, 문화체육부, 1995.
-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새마을문고 운영실무. 서울, 새마을운동중앙회, 1984.
- 서혜란. “公共圖書館서비스 供給에서의 住民參與에 關한 研究.” 國會圖書館報, 제32권, 제5호(1995, 7.8), pp.45-62.
- 서혜란. “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현황과 활성화 전략.” 圖書館學論集(韓國圖書館.情報學會), 第22輯(1995.6), pp.171-204.
- 안희숙. “마을도서관 확산을 위한 지역계획.” 도서관인의 脈(창원전문대학 도서관과), 제7집(1994), pp.14-22.
- 양재한. “公共圖書館과 새마을文庫의 連繫 方向 ; 慶尙南道를 中心으로.” 昌原專門大學 論文集, 第3輯(1985), pp.509-534.
- 양재한. “지역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경남신문사 주최, 공공도서관 활성화 세미나, 1993.

- 양재한. "멀티미디어 시대를 대비한 공공도서관의 세계화 전략." 95 공공도서관
경남지역 세미나 주제강연자료집, pp.5-24.
- 여의도연구소. 세계화시대의 지방화. 서울, 여의도연구소, 1995.
- 윤정기. "地域社會發展을 위한 公共圖書館의 役割." 도서관, 제45권, 제3호
(1990, 5. 6), pp.28-38.
- 이경구. "공부방 탈피를 위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몇가지 문제." 도서관, 제48권,
제5호(1993, 9.10), pp.58-71.
- 이영권. "昌原機械工業基地 圖書館情報網 模型에 關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1.
- 이용남. "公共圖書館 目的의 構造에 關한 研究." 圖書館學(韓國文獻情報學
會), 第22輯(1992.6), pp.29-82.
- 정해성 "公共圖書館 奉仕對象의 擴張에 對한 研究." 현대논문집, 제36집
(1988), pp.311-331.
- 조상현. "공공도서관이 시민에게 접근하는 길 ; 체험을 중심으로." 도협월보, 제6
권, 제3호(1965), pp.85-87.
-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신문사 주최. 21世紀를 向한 昌原市의 座標와 發展課題 ;
심포지움 자료, 1995. 5. 26
- 창원시. 市政白書 1995. 창원, 창원시, 1995.
- 창원시. 창원시사. 창원, 창원시, 1988.
- 최성진.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第33回 全國圖書館大會主題發表論文
集, 韓國圖書館協會(1995), pp.7-14.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93, 1994.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3,
1994.
- 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5 全國統計年鑑 下. 서울, 한국도시행정연구소, 1995.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국민 독서생활화방안 연구 : 공공도서관을 중
심으로. 서울, 동 연구소, 1992. 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도서관 발전정책 및 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울, 동 연구소, 1993, 9.

한운옥. "도서관의 공부방 현상탈피를 위한 도서관의 자세." 도서관, 제48권, 제5호(1993, 9.10), pp.37-57.

문서자료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비전 21, 마을을 열자! 미래를 열자!" 1995, 1.

경남도서관 및 정보문화발전연구소. 연구소 소식, 제1호.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연구소 개소 1주년 기념행사 및 세미나 자료, 1995, 10.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지역도서관망 운영계획.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창원시 복지회관 활성화 방안, 1995, 11.

경남지역사서연구회 간. 경남도서관 포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홍보자료)

봉곡마을도서관 1995년 운영평가서.

봉곡마을도서관 개관식, 1995. 8. 30. (행사프로그램 및 마을도서관 안내자료)

사파동성마을도서관 1995년 운영평가서.

사파동성마을도서관 개관식 및 마을축제, 1995. 7. 23. (행사프로그램 및 마을도서관 안내자료)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설립추진위원회. 사파동성 아파트 마을도서관 개관 관련 설명회 자료

사파동성마을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정

창원시 사회진흥과. 창원시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 계획.

A Study on users ensuring in public libraries and ma-eul libraries in Chang-won city

Yang, Jae Han*

〈Abstract〉

This study aims is users ensuring in public libraries and ma-eul libraries in Chang-Won city. For this purpose, This is surveied about regional inhabitants and regional community.

The actual conditions of public libraries and ma-eul libraries have been investigated and analysed about 4 libraries in Chang-won city. (Chang-won library, Chang-won city library, Sapa Dong-sung ma-eul library and Bong-gok ma-eul library)

The ways of Users ensuring are as follows.

1. It can be formed village common lives through ma-eul library.
2. Fundmental libraries must establish in Chang-won city, and library materials must be common use. For this, All libraries must link regional information network.
3. For the strategy of ensuring the 'core-users', it is suggested from the community and inhabitants study.

* Chang-won Junior College, Library and Information Department, Associate Professor.